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 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²	G D P	1,889억 달러 (2015년)
인구	31.9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5,921 달러 (2015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uevo Sol (Ns)
대외정책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3.2 (2015년)

-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구리(3위), 아연(3위), 금(8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상품수출 중 광물자원이 약 50%를 차지하여 주요 수출 광물 가격변화에 취약함.
- 빈곤율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지역간 높은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법 코카인 재배 및 마약거래와 관련된 치안불안 문제, 광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시위 등도 지속되고 있음.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남미국가연합(Unasur),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는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6.0	5.8	2.4	2.4	3.3
재정수지 / GDP	2.1	0.8	-0.3	-1.9	-2.2
소비자물가상승률	3.7	2.8	3.2	3.5	3.8

자료: IMF, EIU

□ 투자 및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14년 이후 경제성장을 둔화

-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률은 2014년 및 2015년에 각각 2.4%를 기록 함.
- 그러나, 내수시장 활성화, 공공인프라 발주증가 및 신규 광산사업의 본격 생산 착수,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등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016년에는 경제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됨.

□ 2014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 확대 추세

- 광업에 의존하는 재정수지 구조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수입 축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됨.
- 2016년에도 정부의 인프라부문 투자 확대, 광업관련 세입 및 법인세 축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됨.

* 세계은행은 재정상황이 악화된 페루 정부에 25억 달러 대출 제공을 승인('16.2) 하였으며, 본 자금은 페루의 1)공공교육 및 기업영업환경 개선, 2)공공부문 지출 및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임.

□ 기준금리 인하, 환율상승 등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5% 전망

- 2014~15년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 등으로 3%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관리목표수준*을 초과 함.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용(2002년)하고 있으며, 관리목표 물가수준은 2%±1%p로 설정함.

- 한편,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약세에 대응코자 기준금리*를 상향하였으며, 2016년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 엘니뇨에 따른 식료품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 3.50%(’15.9) → 3.75%(’15.12) → 4.0%(’16.1) → 4.25%(’16.2)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취약

- 광업이 경제의 상당 비중(해외직접투자의 24%, 총수출의 51.7%)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 최근 광물가격의 하락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광업의 수출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페루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 최근 美 금리인상 및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경기위축 가능성 존재

-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는 부분적 달러화(Dollarization) 경제*로 최근 美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국 통화약세 및 현지 단기이자율 동반 상승 가능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 함.

* 2014년 기준 은행산업 유동성의 38%, (민간)여신잔액의 43%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적 달러화(Dollarization) 경제로,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많이 받음.

** 페루의 현지 은행간 달러화 표시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단기 이자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페루의 최대 수출국*이자 중요 투자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음.

* 페루의 對중국 수출비중(18.3%, 2014년 기준),

** 중국은 남미 20대 M&A중 페루(자산소재지 기준) 관련 M&A 2건(Glencore Las Bambas copper deposit, Petrobras Energía Perú)을 투자함(2014년 기준).

나. 성장 잠재력

□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

- 구리(2015년 기준 82백만 톤, 세계 3위), 아연(29백만 톤, 3위), 금(2.1천 톤, 8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2년 이후 광업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형 신규광산 생산 착수, 지속적인 광산개발, 가격 경쟁력 등에 힘입어 '15년 이후 광업수출 및 생산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 됨.

* 275억불('12) → 230.8억불('13) → 200.5억불('14) → 184억불('15^P) → 198억불('16^P)

- 그러나, 환경파괴 등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광물 생산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갈등 건수(약 65%가 광업과 연관) : 76건('06) → 211건('15.3)

- 한편, 페루 정부는 2014년 11월 복잡한 환경허가 절차 간소화,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환경법을 제정하여 광산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잉카문명 유적지 보유 등으로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

- 마추픽추, 쿠스코 등 잉카문명 유적지 보유, 외국인들의 사업상 방문 확대 등으로 관광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 역시 경제 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광업 성장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면서 향후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실제로 2015년 기준 페루의 관광객 수 증가율은 9.3%로 중남미 평균(5.4~5.6%, 2014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GDP 공헌도 역시 2014년 3.6%에서 2015년에는 4.9%로 증가 함.

- 2015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페루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천연자원(12위), 문화자원(26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반면, 치안(117위), 교통 인프라(118위)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여 동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됨.

다. 정책성과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부패 만연

- 높은 성장잠재력,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정부부패는 주요 투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2015-16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지수에서 기업경영활동 애로요인으로 정부부패(응답률 14.1%)는 관료주의(18.7%), 노동규제(16.6%)와 함께 주요 애로요인으로 분석됨.
- 페루 정부는 5개년(2012~16년) 반부패계획 수립 및 반부패위원회 설립·운영 등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진한 상황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페루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88위로 2014년(85/175위) 순위보다 하락하였으며, 이는 칠레(23위), 브라질(76위)보다 낮은 수준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 상 수 지	-5,237	-8,474	-8,031	-7,244	-7,321
경 상 수 지 / G D P	-2.7	-4.2	-4.0	-3.8	-4.1
상 품 수 지	7,014	1,265	-946	-2,451	-1,536
수 출	47,411	42,860	39,533	34,905	37,876
수 입	40,396	41,595	40,478	37,356	39,412
외 환 보 유 액	64,167	65,762	62,505	61,460	61,285
총 외 채 잔 액	59,504	60,816	64,355	65,423	67,890
총 외 채 잔액 / GDP	30.9	30.1	31.8	34.6	37.6
D . S . R .	11.5	15.4	15.6	20.3	17.3

자료: IMF, EIU

□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 광물생산 축소 등으로 2014년 이후 상품수지 적자 전환

- 구리, 금 등 광물자원(총수출의 51.9%) 수출비중이 높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대상국임. 2014년에는 내수위축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 국내 광물생산 축소 등으로 수출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는 약 9억 달러 적자로 전환 됨.

- 2015년에도 광물생산 축소 지속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되나, 2016년에는 구리, 금 등 광업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됨.

□ 경상수지 GDP 대비 적자 비중은 4% 내외를 유지

- 기존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 상품수지의 적자전환으로 경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96%를 기록함.
- 2015년에는 수출악화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힘입어 동 적자비중은 3.8%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됨.

□ 2015년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확대, 환율 방어 등으로 소폭 축소

- 2014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소폭 축소되었음
- 2015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 자국 통화(페소) 환율 방어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월평균수입액의 13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야당과의 갈등, 여당 내 분열, 2016년 대선 등으로 정책추진력 약화

- 2011년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가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여소야대 국회*, 영부인 등의 여권 부정부패 사건, 국회 총리 불신임(‘15년 4월)**, 대통령과 갈등으로 인한 제1부통령의 탈당(‘15년 9월) 등으로 국민의 집권여당에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음.

* 여당 내 갈등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탈당하여, 페루승리당(Gana Peru)의 의석수는 집권 초기 47/130석에서 28석(2015년 9월기준)으로 축소 됨.

** 정보부의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정보사찰 실시 등의 사유로 의회가 총리를 불신임하였으며, 이러한 불신임은 1963년 페르난도 벨라운데 테리 정부 이래 최초임.

- 또한, 2016년 4월에 예정된 대선*으로 현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 임.

* 2016년 2월 현재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후지모리 케이코 민중권력당 대표가 지지율 선두를 기록하였으며, 올 4월 대선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년 6월 2차 대선투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를 최종 확정 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나, 지역·인종간 빈부격차는 상존

- 페루의 빈곤율은 2004년 59%에서 2014년 23%로 절반 이상 축소되었으며, 절대빈곤율(extreme poverty rate)은 2004년 20%에서 2014년 4%로 크게 감소함.
- 그러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여전히 극심하며 지역간, 인종간 빈부격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빈곤율(2014년 기준) : 도시(15.8%), 농촌(46.0%)

-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2004년 0.49에서 2014년 0.44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함.

□ 광산, 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반대시위 지속

- 광산,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토지보상, 거주민 이전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 노동자들의 파업 등이 지속되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15년 9월에는 중국계 MMG社가 개발 중인 라스밤바스(Las Bambas) 지역 구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반대시위 3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반대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VRAEM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 마약거래가 치안불안을 야기

- 아푸리막(Apurimac)강, 에네(Ene)강, 만타로(Mantaro)강 계곡지역("VRAEM")을 중심으로 불법 코카잎 재배가 이루어지며, 마약밀매 단체 및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인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연계되면서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코카잎 재배 근절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에는 동 지역을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으로 지정함.

* 세계 2위의 코카잎 생산국인 페루는 코카잎 경작면적 축소, 코카잎 대체 작물(코코아, 커피, 팜유 등)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중임.

3. 국제관계

□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노력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남미국가연합(Unasur),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역외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

- 미국('09년 발효), 중국('10년), 한국('11년), 유럽연합('13년)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양자간 FTA 체결하여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 중동·중남미 지역의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현재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에도 적극적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낮은 연체비율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과중한 외채로 8차례(1968, 1969, 1978, 1983, 1984, 1991, 1993, 1996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바 있음.
- 2011년 이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34.6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및 '단기외채잔액/외화보유액'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5년 9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34억 달러(단기 10.5억 달러, 중장기 23.5억 달러) 중 연체액은 1백만 달러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5. 10.)	3등급	(2014. 10.)
Moody's	A3	(2015. 8.)	A3	(2014. 7.)
Fitch	BBB+	(2015. 10.)	BBB+	(2014. 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년 4월 1일 (북한과는 1988년 11월 21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76), 사증면제협정(19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8), 투자증진및보호협정(1994), 관광협력협정(2003), 범최인인도조약(2005), 자유무역협정(2011), 이중과세방지협약(2014)

□ 교역규모

-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이후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2015년 기준 중남미 내 제5위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 수입대상국임.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동광,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5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8건, 18.3억 달러

<표 4> 한 · 페루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1,440	1,392	1,217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수 입	1,983	1,433	1,136	동광,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내수부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주요국의 경제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 및 수출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 등 광물수입국의 경기둔화로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광물생산도 축소되면서 2014년 이후 상품수지는 적자로 전환됨.
- 빈부격차 및 치안불안이 지속되는 한편,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여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 또한 의회의 총리 해임, 제1부통령의 탈당, 금년에 예정된 대선 등으로 집권여당의 정책추진력도 약화됨.
-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 외채구조도 건전한 편에 속함. 외환보유액의 경우 월평균수입액의 13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광물 가격 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외채잔액 증가 등 거시·재정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높은 성장잠재력과 대외 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됨.

선임조사역 이준석(☎02-6255-5705)
E-mail: joonsuklee@koreaexim.go.kr